

수업에 방역업무에...교사들이 지쳐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안전·건강 한계점 달해
학교 방역망 구멍 우려도
지원인력 배치 더 늘려야



광주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거리두기를 가르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 과정의 방역에 참여함에 따라, 교사의 안전·건강이 한계점에 이르러 자칫 학교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사일정을 진행하면서도 방역 최일선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부터 하교한 뒤까지 방역 작업에 온 힘을 쏟고도, 날을 새다시피 해 원격수업 일상을 만드는 게 일상이 됐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포함해 아픈면 연구나 공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복무지침을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만 9182명의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한 상태다.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등·하교 시 발열체크, 쉬는 시간 학생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시 질서 유지,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서만 보건지킴이 813명을 포함해 돌봄명예교사와 특기프로그램강사 등 1500여 명이 교육활동 지원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620여개 임을 감안한다면 학교당 배치되는 인원은 고작 2명 꼴”이라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업무 분장에 혼선도 있어 운영이 원활하지 않

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협행 지원 인원만으로 부족하며, 복무관리와 학사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학교운영과 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 한 교사는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교사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내몰린 교사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도 밀린 수행평가를 하느라 밤이 부족한 탓에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다가 보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학교와 교원이 대체인력 수급 부담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인력 풀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첫 학생 확진자 학교 학생·교직원 등 591명 음성

전남지역 학생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중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 551명과 확진자가 방과 후에 다닌 시설 등에서 밀접접촉한 40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8일, 하당중 학생·교직원 551명, 지역아동센터와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40명 등 모두 59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남학생 1번 확진자는 지난 27일, 할머니가 광주를 다녀온 후 민간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1차 확진판정을 받아 가족 전체 2차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코로나 확진자 동선·접촉자 찾기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9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전담대책본부 역학조사팀 직원들이 안내에서 구동 중인 폐쇄회로TV(CCTV)를 보며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수시모집, 학생부 전형·실기 실적 전형 출결 만점 처리 복수지원 횟수 4회로 확대

전남대학교가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 있어서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위주전형 지원자들의 출결성적을 모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전남대 입학관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남대는 ‘코로나19’

로 인한 고3 수험생의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되, 졸업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위주전형 지원자 모두에게 출결성적 10%를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성평가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시행돼 온 자기소개서 미제출도 유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남대는 이와함께 올해 수시모집부터 복수지원 가능 횟수를 4회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지원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한편, 전남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6개의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수시모집부터 310명의 신입생을 새로 뽑는다. 신

설학과는 광주캠퍼스에 인공지능학부·지능정보융합학과·빅데이터융합학과, 여수캠퍼스에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석유화학소재공학과·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이다.

여수캠퍼스에는 또 지역인재전형도 신설해 광주·전남북 고교 졸업(예정) 학생 227명을 선발한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지원단 협의회’ 개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 ‘코로나19’에 대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광주시교육감배 학생 대상 각종 대회가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등 학생들의 건강·체력·면역력 증진 및 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해 온 학교체육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협의회에서는 학교급별 체육담당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의 조기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체육의 방향 설정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교육청은 협의회 결과, 실내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실외 체육 활동 프로그램 및 개인 중심 비접촉 체육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1인가구 지원 정책수립 ‘속도’

광주 동구가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선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오는 7월부터 2개월 간 동구 1인 가구 2만 2000여 가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기준 동구 전체 4만 7000여 가구 중 1인 가구가 2만 2000여 가구 (45.8%)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지난 24일 착수보고의 설문조사

내용은 ▲현재의 삶 ▲경제활동 ▲주거생활 ▲건강 ▲여가 및 사회관계, 청년·중장년·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설문 등으로 구성됐다. 또 30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 설문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1인 가구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심층분석도 진행된다.

동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1인 가구 종합지원책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거안정 ▲사회관계망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1인 가구 복지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 북구,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전국 1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패 받아

광주 북구가 금융 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해 전국 1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북구는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연계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

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의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종합상담, 서민금융 상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오후까지 최고 80mm 비

30일 오후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비가 30일 오후까지 이어지며,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29일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20~40mm이며, 남해안과 동부내륙지역에는 2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최저기는 19~21도, 낮 최고기는 22~2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